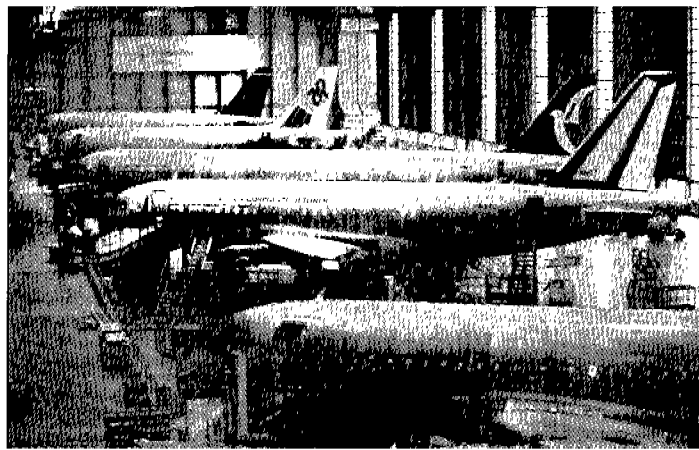




▲ 유로파이터 전투기에 장착된 STORM SHADOW/SCALP EG 미사일



▲ 독일 함부르크의 A319/A321의 최종조립라인



최고 기술력의 유럽 우주항공업체

EADS



| 편집실 |

전체는 각각의 합보다 크다

-EADS의 탄생과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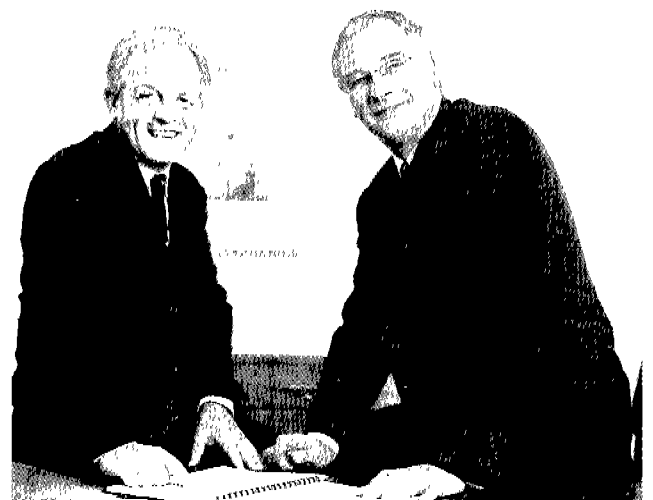
2000년 7월 프랑스, 독일, 스페인 3개국 기업의 합병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유럽 최대 우주항공업체, EADS (European Aeronautic Defence and Space Company)가 탄생했다.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젊은 유럽기업 EADS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전체는 각각의 합보다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EADS의 2002년 총매출액은 299억유로로 우주항공 부문 유럽 최대, 세계 2위, 매출액 기준 상업용 인공위성 발사체 세계 1위, 민수용 헬리콥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EADS의 주요 사업부인 에어버스사는 민간 항공기 판매실적에서 보잉을 앞질렀다. EADS는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두 EADS와 관계가 있다'고 할 만큼 항공기를 비롯해 위성 및 위성발사체, 미사일 등 폭넓은 민·군수 제품군을 생산한다. EADS는 프랑스 파리와 독일 뮌헨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자회사를 제외한 EADS 그룹만도 종업원 10만여명이 유럽을 비롯해 세계 35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인 필립 까뮈(Philippe Camus)와 독일인 라이너 에트리히(Rainer Hertrich)가 공동으로 CEO를 맡고 있는 EADS는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30.21%, 스페인이 5.5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30.9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등 3개 국가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까뮈·라이너 공동 CEO는 'EADS는 공동설립사인 아에로스패시알 마트라 (Aerospatiale Matra), CASA, DASA의 성공을 디딤돌로 하여 '전통'을 '미래'로 이어가는 기업'이라며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We deliver what we promise)'는 motto처럼 신뢰를 가장 중시하는 세계적 우주항공업체의 리더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EADS의 비전을 밝혔다.

최근 EADS는 2003년 사업전략으로 방위 및 우주부문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6월 중순에 열린 2003년 파리 에어쇼에서 EADS 경영진은 방위 및 안보사업부(Defence & Security Division) 신규 출범과 기존 EADS 우주분야를 하나로 묶는 EADS 스페이스(EADS Space)의 본격 가동을 선언했다. 최근 자회사인 에어버스 밀리터리가 유럽 7개 국가와 수주액 20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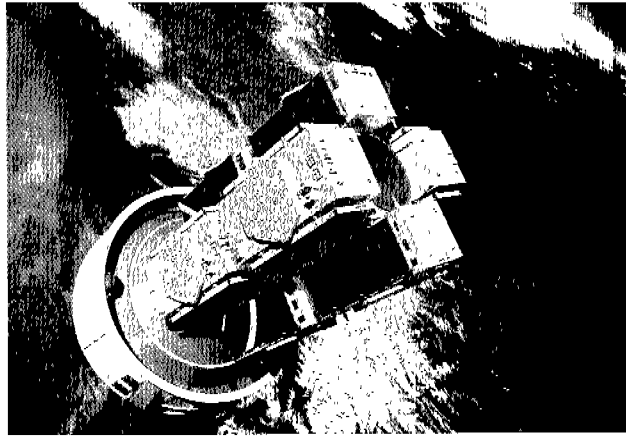
EADS의 공동 CEO인 필립 까뮈(좌)와 라이너 에트리히(우)



▲ 에어버스 밀리터리사의 A400M



▲ 유로콥터사의 헬기제작



▲ 갈릴레오

유로(한화 약 36조)의 군용 수송항공기 A400M의 첫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주액 기준 세계 3위 군수업체로 자리잡았다.

협력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의 전통

한국에서는 에어버스, 유로파이터 전투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 EADS는 20세기 초부터 형성되어온 '협력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라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다.

공동설립사 중 하나인 CASA는 1920년대 스페인에서 독일 도니어(Donier)와 프랑스의 브레구에트(Breguet)의 라이선스하에서 비행기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됐다. 비행기가 보다 정교한 기술을 요함에 따라 제조원가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이 힘을 합쳐 '규모의 경제' 달성을 꾀하기 시작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정부는 합의를 통해 1970년 에어버스사를 설립했고, 1972년 첫 에어버스 모델 A300B가 첫비행을 했다. 마찬가지로 협력의 전통에 따라 유로파이터(전투기)와 유로콥터(헬리콥터) 생산을 위해 손잡은 기업들이 EADS의 탄생을 가져온 것이다.

우주산업에서는 1974년 처음으로 유럽 각국이 공동제작한 심포니(Symphony) 통신위성이 발사됐다. 아리안(Ariane) 사업이 위성체 발사를 위해 1973년 출범, 1979년 첫 상업용 위성 아리안(Ariane)을 발사했다. 1960년대 이후 유럽 여러 국가는 공동으로 나토(NATO) 유럽군의 HOT, 밀란(Milan), 로랜드(Roland) 등 유도미사일을 제작해 왔다. 유럽의 우주항공기업들은 1920년대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 및 자본협력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워 왔으며 이 모든 기업들의 역사는 EADS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

EADS 3개 공동설립사의 역사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아에로스페이스알 마트라(Aerospatiale Matra)

아에로스페이스알 마트라는 1999년 6월 아에로스페이스알

(Aerospatiale)과 마트라 하이테크놀로지(Matra High Technology Group)의 합병으로 설립됐다. 아에로스페이스알은 프랑스 국영기업 남부항공(Sub-Aviation)과 북부항공(Nord-Aviation), 탄도탄개발연구소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후 라가르데르(Lagardere) 그룹에서 독립한 마트라 하이테크놀로지 그룹과 민영화를 추진하여 아에로스페이스알 마트라를 탄생시켰다.

■ 독일-DASA(DaimlerChrysler Aerospace AG)

1989년 설립된 DASA는 다임러크라이슬러 그룹의 항공우주 사업을 통합하면서 생겼다. 다임러크라이슬러는 도니어(Donier), Messerschmitt-Bolkow-Blohm(MBB), MTU Munchen and Telefunken Systemtechnik(TST)를 합병함으로써 탄생했다.

■ 스페인-CASA(Construcciones Aeronauticas 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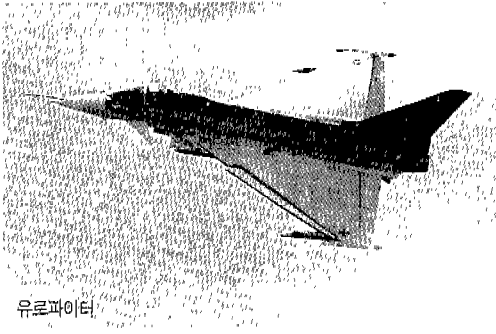
1923년 설립된 스페인 최대의 항공우주산업체로 군용 수송기 시장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CASA는 민영화의 일환으로 EADS에 합병되었다.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두 EADS와 관계가 있다-EADS의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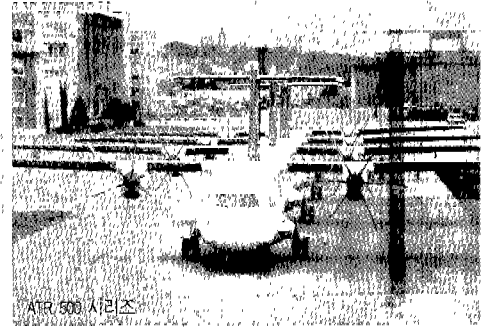
EADS의 사업분야는 크게 우주사업, 중형 및 사업용 항공기(유로콥터/유로파이터 등), 여객기(에어버스), 군용 수송기, 민간 및 방위 시스템, 방위 및 안보사업부로 나뉜다. 세계시장에서의 EADS는 사업용 인공위성 발사체 세계 1위, 헬리콥터 세계 2위, 여객 수송용 항공기 세계 2위, 유도미사일 세계 2위, 위성 세계 3위, 군용 항공기 세계 3위로 전 사업부문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총매출액 299억유로 중 80%가 민수산업에서, 20%는 군수산업에서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군수부문 매출



타이거



유로파이터



ATR 500 시리즈

액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ADS의 각 사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 중형 및 사업용 항공기(Aeronautics)

중형 및 사업용 항공기 사업부문은 에어버스와 군용 수송기 사업군에 포함되지 않은 항공기들을 관할하며 나토(NATO)의 공군부대에 기술전략 지원을 하고 있다. 전투기를 제작하는 유로파이터, 중형 항공기를 제작하는 ATR, 관광/교습용 경비행기를 제작하는 Socata, 항공기 및 수송기를 제조하는 EFW, 항공기 유지보수 및 정비를 담당하는 Sogerma 등이 있다.

전세계 민수용 헬기 수요의 80%를 차지하는 유로콥터(Eurocopter)사는 1992년 프랑스 아에로스파시알과 독일 DASA의 합병으로 설립됐다. 2000년 2개 모회사와 스페인 CASA가 합병하면서 EADS 지분 100%의 헬기 전문기업으로 탄생했다. 유로콥터사는 2톤급의 경량 헬기부터 12톤급 중형 헬기에 이르는 민수용 헬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군수용 헬기로는 타이거(Tiger) 시리즈와 NH90이 주종을 이룬다.

지역항공기 ATR은 40~70석급의 터보프롭기로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현재 60개국 100여개의 항공사가 600여대의 ATR을 운항중이다. Socata는 민간/군용 교습 경비행기 제작업체이며 EFW와 Sogerma는 항공사와 공군부대를 위한 개조,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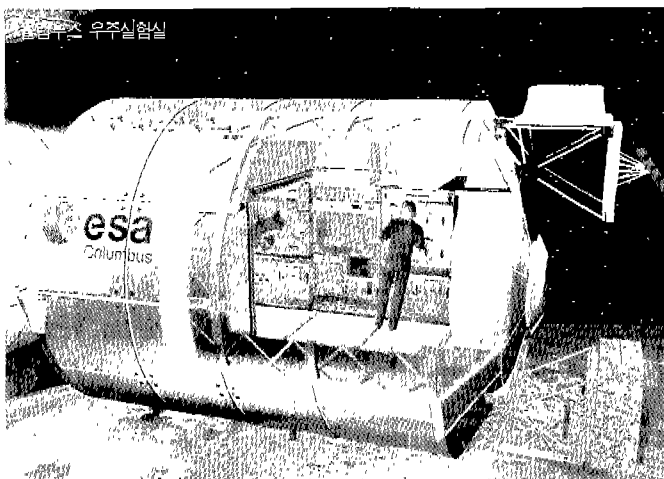
지보수, 정비서비스를 담당한다.

■ 우주사업(Space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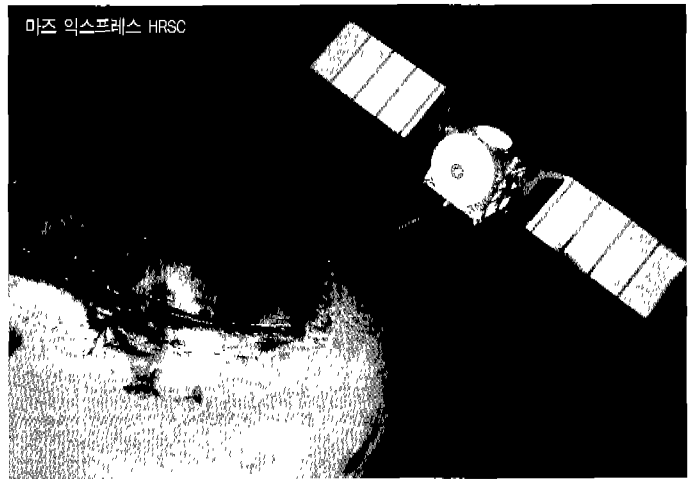
최근 우주사업 부문은 기존의 사업분야를 구조조정해 EADS 스페이스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으며 EADS 아스트리움(위성), EADS 스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발사체 및 궤도 인프라), EADS 스페이스 서비스(위성관련 서비스)로 3개의 자회사를 두고 EADS의 모든 우주분야를 총괄하게 되었다.

아스트리움(Astrium)사는 유럽 최대 위성 전문업체로 특히 과학기술/관측위성과 통신위성 분야에서는 민간과 군용을 망라해 유럽 최대의 공급업체다. 아스트리움사가 유럽우주기구(ESA)와 손잡고 추진한 화성탐사위성 마즈 익스프레스(Mars Express)와 비글(Beagle)은 최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또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의 최종 합의를 끌어낸 위성항법장치 갈릴레오 시스템의 주계약자로, 30개의 위성과 관련 지상 인프라로 이루어진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갈릴레오 시스템으로 유럽은 미국의 GPS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독자적 위성항법장치를 갖게 된다.

EADS 스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사는 EADS 발사체 사업본부와 아스트리움사의 궤도 인프라 사업본부를 통합했으며 아리안 5(Ariane 5)의 개발과 제작을 담당하며 우주정거장(ISS) 사



ESA 콜럼버스 우주실함실



마즈 익스프레스 HRSC

업의 핵심인 우주실험실, 운송체, 로봇 시스템 개발 등이 주 사업분야이다.

또 EADS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사는 Sodern(광전자), Cilas(레이저) 등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EADS의 이름으로 아리안 스페이스, 스타샘(소유즈), 유로콧(로켓) 등에 참여하고 있다.

■ 에어버스(Airbus)

항공기 역사 1백년만에 유럽이 민간항공기 분야에서 미국의 보잉을 제쳤다. 에어버스는 지난해 총 189대를 신규 주문받아 1970년 회사설립 이후 처음으로 미 보잉사보다 많은 비행기 수주대수를 기록했다. 에어버스는 유연성 및 경제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차세대 모델인 550인승 A380 초대형기 시장에서도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보잉사가 차세대 프로젝트로 추진해온 초음속 비행기 개발을 지난해 포기한 점을 들어 에어버스가 향후 전망이 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에어버스의 본사는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하며 세계 120여 지사에서 45,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최종조립 작업은 프랑스 툴루즈나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루어진다.



에어버스 계열기

에어버스사는 EADS와 영국 BAE Systems가 각각 80%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노엘 포르게아르가 CEO를 맡고 있다.

■ 군용 수송기(Military Transport)

현재 군용 수송기 사업부문은 경량 및 중형 수송기(CASA C-212, CASA CN-235, CASA C-295) 및 해상 초계기용인 CASA FITS 미션 시스템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의 A400M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최근 A400M 중형 군용 수송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터키,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7개국을 대표하는 유럽협력국(OCCAR)과 총 180대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A400M 수송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용 수송기 사업부문은 해군 정찰기, 초계기 등 특수목적 항공기도 제작하며 다목적 수송기와 VIP 항공기, 공중급유기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부문은 에어버스 군용 모델의 판매 및 개조, 군용 수송기 항전장비 업데이트, 기체의 개발 및 제작 등을 담당한다. EADS의 CASA MTA 시리즈 항공기는 현재 100여개 사업주체가 운용중으로, 이들은 보급 및 전술물자 수송, 공수부대원 투하, 보급품 공중투하, 부상자 및 병자후송, 해상 초계, 인도적 임무 및 평화유지 임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민간 및 방위 시스템(Defense & Civil Systems Division)

민간 및 방위 시스템 분야는 미사일, 방산 전자기기, 통신, 서비스 등의 세부분야로 나뉘며 이중 미사일은 유도미사일 분야에서 유럽 최대, 세계 2위의 실력을 자랑한다. 40여종의 유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미사일 보조시스템, 탄두, 유도시스템, 추진체 등도 개발, 제작하고 있다.

■ 방위 및 안보사업부(Defence & Security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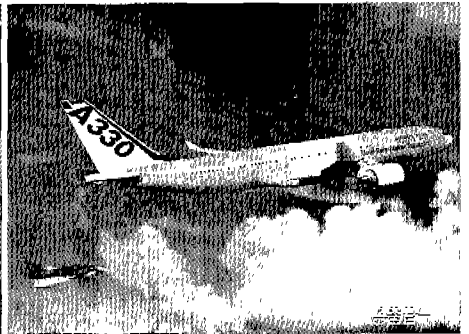
EADS는 올해 제45회 파리에어쇼를 통해 방위 및 안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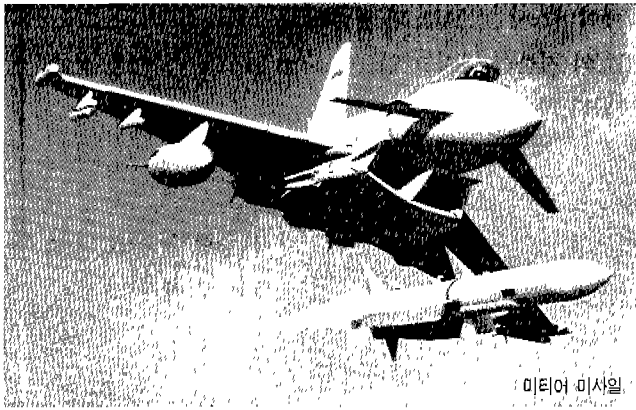
CN-235-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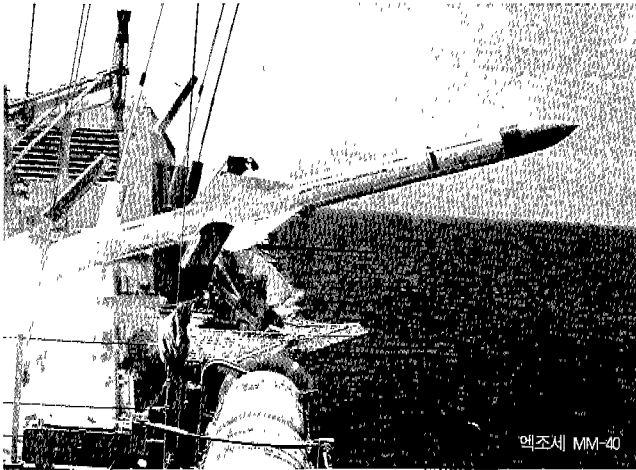
FITS



A330



미티어 미사일



맥조시 MM-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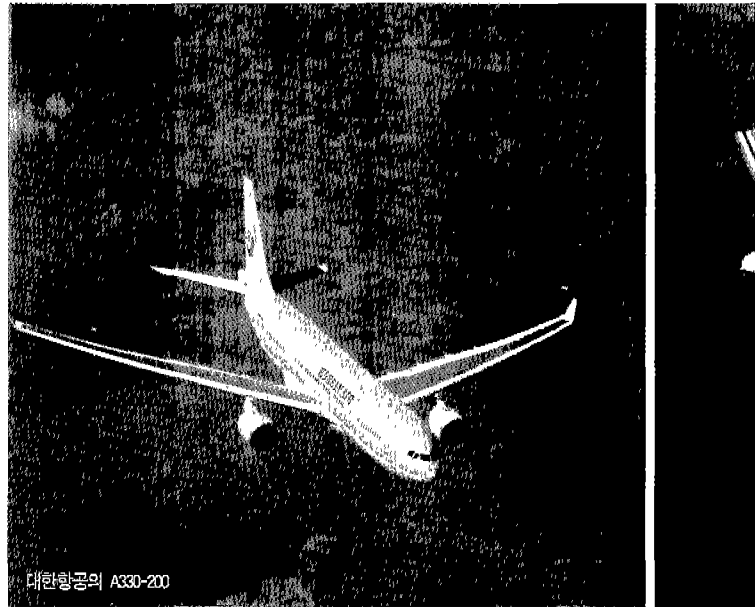
부의 신규 출범을 발표했다. 뮌헨에 본부를 두고 9개국에서 약 2만5천명의 직원을 둔 이 사업본부는 올해 매출액을 50억유로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민수부문의 집중을 막고, 민·군수사업간 균형을 맞추려는 EADS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며 새로 출범한 사업본부는 C4IR 전반과 해군 및 공군용 각종 시스템, 유인 및 무인항공 임무수행시스템, 완전한 통신시스템 등을 모두 포괄한다.

한국의 든든한 동반자, EADS

한국은 EADS의 아태지역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EADS의 공동설립자들은 한국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으며, 합병 이후 더욱 많은 업체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 EADS는 한국 우주항공분야에서 탁월한 자금 및 협력모델로서 질충교역, 기술이전 패키지를 제시한다.

■ 유로콥터

유로콥터사는 다목적 헬기사업(KMH)을 앞두고 한국의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군의 소요에 부응하는 한편 한국 항공산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도모해 이상적인 협력자의



대한항공의 A330-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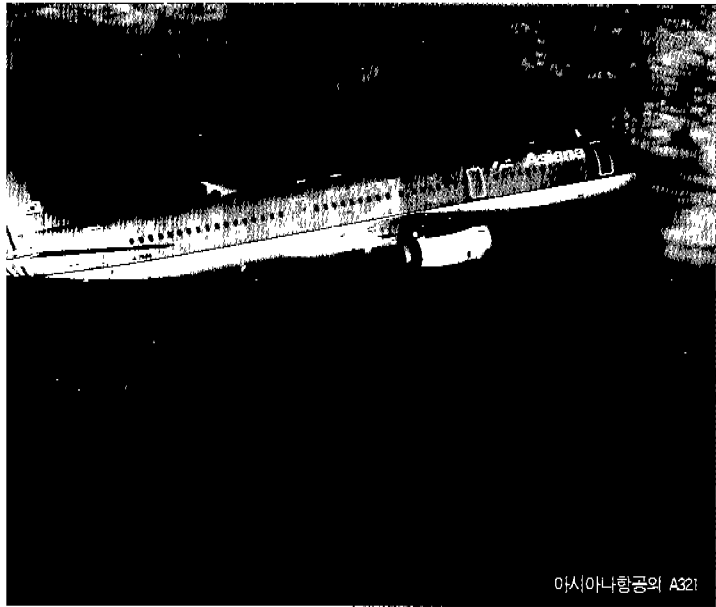
조건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300개 고객에게 1,500여대의 헬기를 공급해온 유로콥터사에게 한국은 오랜 고객이다. 대한민국 해군에 알루엣 III(Alouette III)를 인도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으며, 알루엣 III 헬기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 유로콥터사는 육군 항공대의 KUH 사업의 일환으로 12대의 BO105 헬기를 인도했다. 군수 목적 이외의 공공분야용으로 도핀(Dauphin), 에퀴레이(Ecureuil), 슈퍼 퓨마(Super Puma) 등을 공급해 왔다. 점차 증가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로콥터사는 2001년부터 삼성과 협력을 통해 중정비분야의 새로운 협력계약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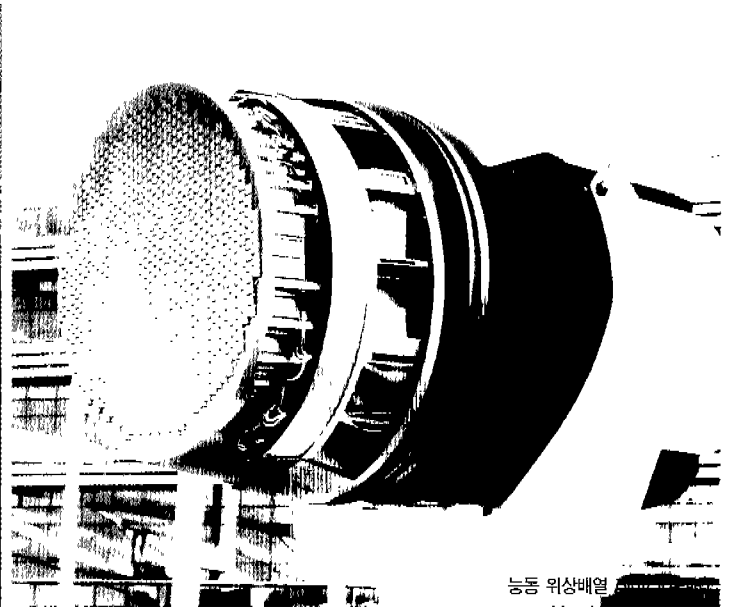
■ 우주사업

EADS 자회사인 아스트리움사는 지난 수 십년간 통신과 지구 관측분야에서 한국의 우주계획에 기여해 왔다. 아스트리움사는 우주개발 분야 세계 10위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한국에 적극적 기술이전을 실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현재 기상재난 조기예측체제를 구축할 통신해양기상위성(2008년 발사예정) 개발에 파트너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로 정지궤도위성의 국내 독자개발 능력확보를 통해 다른 산업으로 핵심기술을 전파하고 위성관련 기술인프라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지구관측분야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 위성으로 알려진 차세대 관측위성의 플랫폼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할 업체로 아스트리움사를 선정했다. 2004년에 발사예정인 아리랑 2호는 1m의 고해상도 영상을 전송해 지도제작, 환경관측, 재해



아시아나항공의 A321



능동 위상배열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민간 통신분야에서 아스트리움사는 한국통신(KT)에 무궁화 위성의 탑재체(payload)를 공급했으며 무궁화 1호와 2호를 통제하는 지상통제소를 대덕과 용인에 설치했다.

EADS의 우주사업부와 한국의 또 하나의 연결고리는 EADS가 주요 참여자인 아리안 발사체 프로그램인데, 1999년 3월 무궁화 3호 위성을 발사하는데 아리안 4 발사체를 이용한 바 있다.

■ 에어버스

대한항공은 1974년 A300B를 발주하여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에어버스를 주문한 항공사가 되었다.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지역에서 에어버스와 가장 오랜 유대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올해 파리에어쇼에서는 8대의 A380을 발주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A300과 A330을 합쳐 30여대의 에어버스 여객기를 운항 중이다. 아시아나항공도 현재 국내선 및 국제선에서 6대의 A321을 운항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약 20개국 이 지속적으로 에어버스의 항공기를 구입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에어버스의 중요한 협력업체이기도 하다.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에어버스 A330/A340의 전방동체 외부패널을 제작하기로 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A320 시리즈의 동체 외부패널 및 A320과 A330/A340 시리즈의 날개부품을 제작하고 있다.

■ 군용 수송기 사업부

EADS 공동설립사인 CASA와 한국과의 관계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3개사 합병 수년 전부터 CASA사의

C-212와 CN-235(CN-235는 당초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는 이미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1980년에 CASA 최초의 항공기 CASA C-212-100이 대한항공에 인도되었고 1992년에 대한민국 공군은 CX 계획에 따라 12대의 CASA CN-235를 구매했다.

■ 민간 및 방위 시스템 사업

Matra Systemes & Information은 한국에서 건조한 한국산 프리깃함(Frigates), 구축함, 다목적 함정에 장착될 디코이 발사 시스템 납품계약을 대한민국 해군과 체결했다. EADS는 이 시스템을 라이선스로 생산하는 협력계약을 맺었다. 향후 계획으로는 PKX 프로그램(42척) 및 KDX III 구축함 등에 관한 사업이 있다.

또 탈레스 네덜란드(과거에는 Signal사)와 공동으로 KDX III 구축함에 장착될 F124 베이스라인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전투지휘 시스템, 대공 전투시스템이 포함된다. 양사는 독일의 F124 프리깃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가용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KDX III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투지휘 시스템뿐만 아니라 메인 센서, 차세대 다기능 레이더인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APAR) 등이 포함되어 있다. 탈레스와 EADS는 현재 공동으로 APAR을 개발 중이다. 탈레스는 전투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며 KDX 사업과 관련하여 주 계약자가 될 것이고 EADS, 레이스온 및 삼성-탈레스 디펜스(STC)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하청계약사로 참여한다. ☺